

보도자료

2010년 1월 29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이용석 과장 (☎750-1710)

국제협력담당관 윤웅현 사무관 (☎750-1715) yunwh@kcc.go.kr

최시중 위원장, 멕시코 통신교통부장관과 양자회담 가져

-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조하기로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월 29일(금) 오후에 멕시코의 물리나르 통신교통부 장관을 만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디지털 전환 준비 등 한국의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융합을 통한 미래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 방향과 멕시코의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기구 활동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멕시코가 모바일 중심의 선진형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와이브로 도입이 효과적임을 설명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면 멕시코의 정보통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이 '14년도 ITU전권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멕시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 ITU 전권회의(PP, Plenipotentiary Conference) : ITU 정책·예산 등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ITU 집행부 및 이사국을 선출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4년마다 개최하며 '10년도는 멕시코에서 10월 개최

이에 대해 몰리나르 멕시코 통신교통부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한 한국의 방송통신 발전상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과 기술의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양국이 ITU 등 국제기구에서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하여 멕시코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하여 한국의 정책경험과 사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